

적극적 기업 지원을 위한
공급망안정화기금
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

2025. 3. 25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. '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현황	1
II. '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방향	2
III. 공급망안정화법 개정 추진	4

I. `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현황

1.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

- 공급망안정화법 시행('24.6월)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구성 및 '24년 운용계획 의결('24.9월)
 - '24.9월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(2인), 정부(기재부, 외교부, 산업부 1인), 수은(1인)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(총 7인)
 - 제1회 공급망 기금운용심의회('24.9월)는 기금운용 관련 규정, 리스크관리 방안, 기금운용계획 등 의결

2. 선도사업자 선정

- '24년 중 두 차례에 걸쳐 10개 부처 소관 경제안보 품목 66개 /서비스 2개 항목에 99개* 기업 선정
 - * 대기업 25개, 중견기업 30개, 중소기업 42개, 공공기관 1개, 협동조합 1개
 -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 중점 지원 대상으로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(0.8~1.0%p 인하) 적용

3.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현황

- (기금 규모) 국회의 '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결에 따라 총 5조원 규모로 기금 출범
- (기금 지원) 대출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간접투자도 병행
 - (대출) 21개 기업에게 2조 119억원 승인
 - (투자) 공급망안정화기금 1천억원과 수은 공동출자를 통해 1조원* 규모 특화 사모펀드 조성('24.12월 승인 → '25년 상반기 결성)
 - * (규모) 1조원 = 공급망안정화기금 1천억원 + 수은 1천억원 + 민간출자 8천억원

Ⅱ. `25년 기금운용 방향

1. 기본방향

- 기금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지원수단을 다각화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업 적극 지원
 - 최대 10조원* 내에서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되, 관계부처·공급망안정화위원회·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
- * '25년도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(10조원) 국회 본회의 의결('24.12.26자)
- 대출·보증 외, 직·간접 투자 등 지원수단 다각화

2. 중점 추진과제

① 공급망 핵심산업의 **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지원**

- 전기차 캐즘(chasm),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·구매 지원
- (지원 대상)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·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

Ⅰ 지원기업 예시 Ⅰ

- ① 이차전지 소재(분리막), 원료(전해액)를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 또는 원료(반도체 특수가스)를 구입하는 반도체 기업
- ② 중간재(NCM 전구체)를 구입하는 양극재 기업

- (지원 내용)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하여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지원 → '25년 1조원 지원 목표

② **경제안보 서비스분야로 지원 범위 확대(해운 물류)**

- '25년에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도입·생산·유통망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
 - (지원 분야) 기존 품목 위주에서 경제안보 서비스로 확대하고,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부터 우선 지원
 - (지원 대상) 경제안보품목관련 운송 선박확보, MRO사업* 등 우선 지원하되, 점진적 범위 확대(주요국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)
- * 원활한 운항을 위한 유지보수(Maintenance)·수리(Repair)·운영(Operation)

③ 「**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**」을 통한 기금지원 사각지대 해소

- 기금대출과 신·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'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'('25.1.23 신설)을 통해 중소·영세기업의 여신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
 - (대상) ① 선도 사업자, ② 선도사업자 안정화사업의 협력기업, ③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기업
 - (규모) '25년 최대 2천억원 → '26년부터 보증규모 확대 추진
 - 대상 기업에게는 보증 + 추가 금리우대를 통해 금융비용 경감

④ **기금사업 투자·분석역량 강화**

- (투자 역량)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 신설(수은, '25.7월)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한 직·간접 투자 적극 추진
 -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, '핵심광물 투자 협의회*'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 추진
 - * 제1차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 개최('25.2.18, 기재·산업·외교부, 수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 등 참여)
- (분석 역량) 수은내 '공급망분석팀'을 신설('25.1월)하여 연구·분석 기능을 강화하고, '기금 투자자문단*' 운영을 통해 창의적 지원 수단 개발
- * 수은 내·외부 투자전문가(수은 내 투자 담당자, PE 운용 인력 등)로 구성

Ⅲ. 공급망안정화법 개정 추진

- ①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 - (배경) 現 기금은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 조달(추후 상환 필요)
→ 기금 구조상 고위험 투자 및 적극적 대출금리 지원 등 한계
 - (활용) 수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직·간접 투자, 주요사업 초저리 대출 등을 통해 기금지원의 실효성 제고
- ②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
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지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*함으로써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반 마련
 - * '기간산업안정기금'의 경우 산업은행법(제41조)에 면책조항 기 도입
- ③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(現 5년) 을 5년 범위에서 연장
 - 기금지원·재원확보의 불확실성 해소 및 기금채권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조성기간 제한 완화